

한산도 지역 주부들의 전통음식에 관한 인지도

박 영 선

대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s in Hansan - Do Area

Young Sun Park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Taegu University

Abstract

To identify the kinds and the usage of Korean traditional foods, a survey was conducted for 112 housewives in Hansan-Do area by using a questionnai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994 to 1998.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evelopment of traditional foods and their menu for fast foods was the highest, however the frequency to use the developed fast food was the lowest in their perception degree. Traditional foods were evaluated much better than the foreign foods.

Key words: Hansan-Do, Korean traditional foods

I. 서 론

각 나라의 전통 식생활풍습은 그 민족과 그들의 독특한 문화생활의 형성이 그 근저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을 자연에 순응하며 그 변화를 이용하는 지혜로써 거주지역의 기후나 풍토에 알맞은 그들의 식품재료, 조리·가공법과 그 적용, 고유음식 및 식기와 조리용구 등을 개발·발전시키면서 그리고 상차림의 구성형식, 의례음식의 규범, 식생활 예절 등 고유한 식생활문화 양식을 형성하면서 면면히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음식문화의 형성은 크게 농업시작시기에서 삼국시대, 신라·고려시대, 조선시대, 개화기에서 현대로 시대적 구분을 할 수 있다¹⁾. 각 형성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농업시작기에서 삼국시대에는 한국 식생활에서 기본음식(죽·밥·떡·포·장류·술·젓갈·고기와 어패류의 찜·구이·채소절임 등)과 주·부식의 반상차림이 형성된 시기이며, 신라·고려시대에 있어서 신라의 통일은 삼국(백제·고구려·신라)이 각각 발달시켜온 음식문화가 교류되는 계기가 되었고 승불사조가 팽배한 사회환경에서 채소음식과 병과류(특히 유밀과)가 발달하고 차를 마시는 풍습이 유행하던 시기이었다. 그리고 고려초기에는 대외무역의 증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 1997년도 교내 연구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대로 접객양식이 형성되었으며, 고려후기에는 제례음식의 기준과 상차림이 완성되고 증류법으로 소주를 내리기 시작한 시기이다.

조선시대에는 향약을 연구하여 동의보감의 업적을 이루었고 약식동의(藥食同意)의 관점을 음식에 적용하여 술·죽·떡·음청류 등에 향약제를 자연스럽게 가미하여 향미와 약효가 있는 음식을 발달시켰다. 또한 일상식의 음식구성에 있어서 식품의 균형된 배합의 원칙을 세웠고 제례·혼례 등 통과의례 음식을 규범화시켰으며 절식풍습을 관행화하여 보급시킨 시기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음식문화는 시대적 형성역경을 겪으면서 형성되었으며, 개화기를 기점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변혁을 거치게 되었다. 근래 경제발전과 산업화·공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식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외식산업이 발달·확산·고급화되고 집단급식소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가세하여 근래 외국 브랜드의 패스트식품(fast foods)·인스턴트식품(instant foods)·가공식품들이 무절제하게 도입·범람하게 되어 서구식 식생활이 가져오는 성인병들은 국민보건상 커다란 문제거리로 대두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의 크게 변화한 식생활 환경에서 오는 이와 같은 현상은 잘못된 식생활이 원인이 되어 생겨났다. 그러므로 영양균형이 잡히고, 자연의 섭리에 따른 우리

의 전통음식들이 최근 외국에서는 건강음식으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그 독특성과 우수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약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전통음식의 고유성을 살리면서 개량·개발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변화한 사회의 맛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특정 도서지역인 한산도의 식생활문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가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며 육지와는 다른 식생활문화 양상을 띠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한산도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우리의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구조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한산도 지역의 식생활문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 충무시 한산면 7개동(입정표, 창동, 의암, 야소, 진두, 호두, 용초동)에 거주하는 주부들 중 임의로 11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1차 자료수집은 1993년 6월 18일부터 6월 21일에 시행하였고, 2차 자료수집은 1998년 5월 21일부터 5월 23일에 걸쳐서 실시하여 한산도 주부들의 전통 식생활문화의 인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한산도 지역의 전통 식생활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 및 이용실태 등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실제 면담을 통하여 주부들이 알고 있고 또 실제로 행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통계처리가 가능한 112부에 대하여 관련된 문항들을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도는 χ^2 검증 및 F-test(5점 Likert 척도: 최소 1점-매우 좋지 않다.~최대 5점-매우 좋다.)를 적용하였으며, 이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가장의 직업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업이 45.5%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울릉도²⁾의 경우보다 8.7% 높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가장의 직업	농업	25	22.3
	어업	51	45.5
	봉급자	13	11.6
	상업 및 기타	23	20.5
	계	112	100.0
가계의 월소득	20만원 이하	35	31.3
	21~60만원	34	30.4
	61~100만원	37	33.0
	101만원 이상	6	5.4
	계	112	100.0
주부의 직업	유	29	26.4
	무	81	73.6
	계	110	100.0
주부의 교육수준	무학	39	35.1
	초등졸	45	40.5
	중졸	16	14.4
	고졸	11	9.9
	계	111	100.0
주부의 연령	30세 이하	5	4.5
	31~40세	25	22.3
	41~50세	23	20.5
	51세 이상	59	52.7
	계	112	100.0
가족수	1~2인	34	30.4
	3~4인	30	26.8
	5인 이상	48	42.9
	계	112	100.0
종교	불교	78	69.6
	기독교	21	18.8
	기타	13	11.6
	계	100	100.0
가족형태	핵가족	83	75.5
	시댁동거	27	24.5
	계	100	100.0
가정부 유무	있다	0	0
	시간제	0	0
	없다	112	100.0
	계	112	100.0
주부의 고향	한산면	63	56.3
	기타	49	43.8
	계	112	100.0
결혼경과년수	20년 이하	37	33.0
	21~30년	24	21.4
	31~40년	24	21.4
	41년 이상	27	24.1
	계	112	100.0
며느리서열	만머느리	60	54.1
	기타	51	45.9
	계	111	100.0

*이하 사례수가 다른 것은 결측치(missing data) 때문임.

경향이며, 다음이 농업(22.3%), 상업 및 기타(20.5%) 그리고 11.6%를 차지한 봉급자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가계의 월소득은 20만원 이하가 31.3%로 울릉도²⁾의 3배로 나타났으며 21~60만원이 30.4%, 61만원 이상은 38.4%로 나타나 울릉도²⁾보다 14.8%나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경제소득이 울릉도 지역²⁾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직업에 있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26.4%)가 전업 주부의 약 1/3에 해당하였으며, 연변 조선족 주부들과 비교하여 보면³⁾ 연변 조선족 주부의 경우 86%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전업 주부는 연변 조선족 주부가 한산도 지역 주부의 1/5에 불과하였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무학이 35.1%인데 이는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한 임⁴⁾의 5배, 김 등⁵⁾의 13.5배이며 같은 섬 지역인 울릉도²⁾와 연변 조선족³⁾의 경우 무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졸·중졸은 54.9%인데 이는 연변 조선족 주부³⁾, 강원도⁷⁾, 풍기⁸⁾보다는 많이 낮으며(약 13~24%), 울릉도²⁾보다는 14.3%나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교육수준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면접조사에 응답한 주부들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1세 이상이 52.7%로 가장 많은 값을 나타냈으며 다음이 31~40세(22.3%), 41~50세(20.5%)의 순이며, 이는 51세 이상의 2/5 정도에 해당하였다. 가족수는 5인 이상이 42.9%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1~2인이 30.4%, 3~4인이 26.8%로 가장 낮은 경향인데, 울릉도²⁾의 경우 3~4인이 가장 높은 비율이며 한산도의 약 2배를 나타냈다. 종교는 불교가 69.6%로 가장 높았으며 기독교는 18.8%로 불교의 27%에 해당하였다.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이 75.5%로 이⁹⁾와 장¹⁰⁾보다 각각 14%와 9.9% 낮은 수치이며 연변 지역³⁾과는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가정부는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100%), 주부의 고향은 한산면이 56.3%로 본 고향이 고향인 경우가 울릉도²⁾보다 10% 이상 낮은 비율이며, 결혼경과년수는 20년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33.0%)이고 다음이 41년 이상으로 24.1%이며 21~30년, 31~40년은 동일한 비율(21.4%)을 보였다. 머느리 서열은 맏머느리가 54.1%를 차지하였다.

2.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표 2는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의례에 따른 특별음식을 마련하였고 또 명절에 따른 절식으로 그 계절에 어울리는 특별음식을 마련하여 즐겨왔다.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있어서 주부

의 교육수준과 연령, 그리고 주부의 고향은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었으나 가정의 직업, 가정의 수입, 가족 수 및 결혼경과년수 등은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울릉도 지역²⁾의 경우는 주부의 학력, 연령, 주부의 고향, 가정의 소득 등 모든 변수에 있어서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같은 섬 지역이라도 대조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연변 지역³⁾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수는 주부의 직업, 종교, 가정부의 유무 및 주부의 고향이며 대구 지역¹¹⁾은 주부의 연령과 학력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상황변수별로 살펴보면 주부의 교육수준($p < 0.01$)의 경우 4집단의 비율 분포는 초등졸이 4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34.5%를 차지한 무학이며 중졸은 고졸의 약 1.5배이며 고졸은 초중졸의 1/4이었다.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있어서 주부의 교육수준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하위집단 모두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는데, 그 중 초등졸이 3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무학으로 29.1%이었다. 주부 연령의 전체적인 비율 분포를 보면 51세 이상이 52.3%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이 31~40세로써 22.5% 그리고 41~50세는 30세 이하(4.5%)의 4.6배로 나타났다. 주부의 연령($p < 0.01$)과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의 관계를 보면 가정교육을 통해서가 4집단이 차지한 비율이 83.8%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51세 이상이 47.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는데 이는 31~40세의 3.5배, 41~50세의 2.5배에 해당하였다. 주부의 고향($p < 0.05$)의 경우 한산면의 비율 분포는 55.9%이며 두 집단 모두 가정교육을 통해서가 높았는데 한산면이 51.4%로 이는 연변 조선족 주부들 중 고향이 북한인 경우³⁾와 비슷한 비율을 기록하였다.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있어서 전체적인 경향은 각 변인에 관계없이 가장 강한 영향을 받은 요인은 가정교육이었으며 각 변인의 비율 분포는 83.6~84.5%의 범위이었으며, 다음이 취미·관심(9.0~9.2%), 매스컴·책·기타(6.4~7.3%)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지식·기호도 조사¹²⁾에서는 매스컴이 4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가정교육(27.9%)이었고, 학교교육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남·여 모두 매스컴과 가정교육에 의해서 관심있게 된 큰 요인이 되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적이었($p < 0.001$).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조사¹³⁾에서는 가정교육(58.5%)을 통해서가 가장 많고 매스컴(16.8%), 취미·관심의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아졌으며 가장 낮은 비율은 역시

표 2.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변인	구분	취미·관심	가정교육	매스컴·책·기타	계	χ^2 -value
		빈도(%)	빈도(%)	빈도(%)		
가장의 직업	농업	2(1.8)	22(19.8)	1(0.9)	25(22.5)	1.29
	어업	5(4.5)	41(36.9)	5(4.5)	51(45.9)	
	봉급자	1(0.9)	11(9.9)	1(0.9)	13(11.7)	
	상업 및 기타	2(1.8)	19(17.1)	1(0.9)	22(19.8)	
	계	10(9.0)	93(83.8)	8(7.2)	112(100.0)	
가계의 월소득	20만원 이하	2(1.8)	28(25.2)	4(3.6)	34(30.6)	3.20
	21~60만원	4(3.6)	28(25.2)	2(1.8)	34(30.6)	
	61~100만원	4(3.6)	31(27.9)	2(1.8)	37(33.3)	
	101만원 이상	0	6(5.4)	0	6(5.4)	
	계	10(9.0)	93(83.8)	8(7.2)	111(100.0)	
주부의 직업	유	3(2.8)	24(22.0)	2(1.8)	29(26.6)	0.07
	무	7(6.4)	67(61.5)	6(5.5)	80(73.4)	
	계	10(9.2)	91(83.5)	8(7.3)	109(100.0)	
주부의 교육수준	무학	4(3.6)	32(29.1)	2(1.8)	38(34.5)	15.11**
	초등졸	1(0.9)	42(38.2)	2(1.8)	45(40.9)	
	중졸	4(3.6)	11(10.0)	1(0.9)	16(14.5)	
	고졸	1(0.9)	7(6.4)	3(2.7)	11(10.0)	
	계	10(9.1)	92(83.6)	8(7.3)	110(100.0)	
주부의 연령	30세 이하	1(0.9)	4(3.6)	0	5(4.5)	15.34**
	31~40세	6(5.4)	15(13.5)	4(3.6)	25(22.5)	
	41~50세	1(0.9)	21(18.9)	1(0.9)	23(20.7)	
	51세 이상	2(1.8)	53(47.7)	3(2.7)	58(52.3)	
	계	10(9.0)	93(83.8)	8(7.2)	111(100.0)	
가족수	1~2인	2(1.8)	28(25.2)	3(2.7)	33(29.7)	1.46
	3~4인	2(1.8)	26(23.4)	2(1.8)	30(27.0)	
	5인 이상	6(5.4)	39(35.1)	3(2.7)	48(43.2)	
	계	10(9.0)	93(83.8)	8(7.2)	111(100.0)	
종교	불교	8(7.2)	64(57.7)	6(5.4)	78(70.3)	0.80
	기독교	1(0.9)	18(16.2)	1(0.9)	20(18.0)	
	기타	1(0.9)	11(9.9)	1(0.9)	13(11.7)	
	계	10(9.0)	93(83.8)	8(7.2)	111(100.0)	
가족형태	핵가족	6(5.5)	71(65.1)	6(5.5)	83(76.1)	0.80
	시댁동거	3(2.8)	22(20.2)	1(0.9)	26(23.9)	
	계	9(8.3)	93(85.3)	7(6.4)	109(100.0)	
주부의 교향	한산면	2(1.8)	57(51.4)	3(2.7)	62(55.9)	7.42*
	기타	8(7.2)	36(32.4)	5(4.5)	49(44.1)	
	계	10(9.0)	93(83.8)	8(7.2)	111(100.0)	
결혼경과년수	20년 이하	8(7.2)	26(23.4)	3(2.7)	37(33.3)	11.72
	21~30년	0	21(18.9)	2(1.8)	23(20.7)	
	31~40년	1(0.9)	22(19.8)	1(0.9)	24(21.6)	
	41년 이상	1(0.9)	24(21.6)	2(1.8)	27(24.3)	
	계	10(9.0)	93(83.8)	8(7.2)	111(100.0)	
머느리서열	말머느리	5(4.5)	52(47.3)	2(1.8)	59(53.6)	2.02
	기타	5(4.5)	41(37.3)	5(4.5)	51(46.4)	
	계	10(9.1)	93(84.5)	7(6.4)	110(100.0)	

*p<0.05 **p<0.01.

학교교육이었다. 나¹²⁾의 경우도 가정교육, 관심 및 취미, 요리 특강의 순이었으며 학교교육이 가장 낮았다.

중국 연변 조선족³⁾에 있어서도 가정교육이 가장 높고 취미·관심, 책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들에서

조사된 결과에서 보면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학교교육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기타에 포함될 정도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 우리의 식생활은 근대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수산물의 수입 개방 및 패스트푸드(fast foods)와 인스턴트식품(instant foods) 등 외래 식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한 식생활의 서구화 추세, 식품가공저장 기술의 개발 및 상품화, 외식 및 식품산업의 대형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식생활양상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정교육과 더불어 학교교육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양식의 전승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서 매스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이 등¹³⁾의 조사에서는 학교에서 전통음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94.0%로 가장 많아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전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¹⁴⁾에서는 가정이나 학교교육을 통해서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역시 학교교육을 강조하였다.

이 등⁹⁾의 조사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매스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므로 매스컴에 의해 한국 전통음식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연변 조선족³⁾의 경우도 자연 습득의 가정교육과 함께 학교교육 및 매스컴, 전시회, 요리경연 대회 등 프로그램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한산도 지역의 경우 경제소득 자원이 다른 섬 지역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고 그로 인하여 외지로 나가는 경향이 많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비한 현황이므로, 울릉군의 4H 후원으로 열리는 행사 중 요리솜씨 자랑대회나 경주의 매년 주제를 달리하여 열리고 있는 문화행사('98 한국 전통주와 떡 축제), 제주도의 섬 문화 축제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함으로써 전통음식을 비롯한 전통 생활문화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민의 소중한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고조와 적극적인 활동 및 자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전통음식(명절·의례·상용음식)을 배우게 된 경위

전통음식(명절·의례·상용음식)을 배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변인에 있어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섬 지역인 울릉도²⁾의 경

우 주부의 연령과 학력 및 가장의 직업에서, 연변 조선족³⁾은 가계의 월소득, 주부의 월소득, 가족의 형태 및 가정부 유무에서, 대구지역¹¹⁾은 주부 연령, 주부의 학력 및 가족형태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경향을 보여 주었다.

본 조사의 전통음식을 배우게 된 경위에 있어서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가장 영향을 준 요인은 친정 어머니로서 변인의 평균 범위가 59.8~60.4%이며 다음이 시어머니(31.8~33.6%)로 나타났는데, 이는 울릉도²⁾, 중국 연변³⁾ 및 대구¹¹⁾와 같은 경향이었고 가장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요인은 매스컴·학교·기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역으로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4. 자주 이용하는 전통음식의 종류

표 3은 조사대상자들에게 평소 자주 이용하는 전통음식을 나열하고 수에 제한없이 답하도록 하여 얻은 결과 떡, 식혜, 약식, 강정, 약과, 수정과, 전과, 차종류의 순으로 그 이용도가 낮아졌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전통음식은 떡으로서 74.1%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울릉도²⁾의 약 1.8배 대구¹¹⁾의 약 2.4배 나¹²⁾의 3.1배이었다. 중국 연변 조선족³⁾의 경우도 한산도와 마찬가지로 떡종류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식혜는 69.4%로 중국 조선족³⁾과 대구 지역¹¹⁾의 각각 3.5배 그리고 울릉도²⁾의 약 1.5배, 나¹²⁾의 3배로 나타나 한산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고유음료인 식혜를 크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사이다, 콜라와 같은 junk 음료^{15,16,17,18,19)}와는 대조적으로 단백질·탄수화물 및 무기질 중 칼슘과 인의 함량이 풍부한 고유 영양음료인 식혜를 자주 만들어 이용하는 것은 건강상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식혜 다음으로

표 3. 자주 이용하는 전통음식

전통음식의 종류	빈도*	백분율(%)
떡	83	74.1
약과	34	30.4
약식	40	35.7
수정과	25	22.3
식혜	77	69.4
화채	10	8.9
강정	36	32.1
전과	20	17.9
다식	1	0.9
차종류	17	15.2
기타	6	5.4

*빈도는 조사대상자 112명이 수에 제한없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음식이라고 답한 수치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약식(35.7%)으로서 중국³⁾의 3/5 정도, 나¹²⁾의 3.8배이며 강정은 32.1%로 중국³⁾의 2배를 차지하고 있는데 같은 섬 지역인 울릉도²⁾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과는 울릉도²⁾의 12.2배, 중국³⁾의 7.6배에 해당하였고, 수정과는 22.3%로 대구¹¹⁾의 약 2배, 울릉도²⁾의 2.3배이었다. 전과(17.9%)는 중국³⁾의 약 1/2 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차차류는 15.2%로 울릉도²⁾의 2.5배, 대구¹¹⁾의 1.5배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산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통음식의 이용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떡·식혜·약식·강정·약과 등의 이용 비율이 높아 명절·의례 등의 행사에 외국 식문화의 유입에 밀려 약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 자주 쓰여지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5. 전통음식과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

우리의 전통음식에는 왕실·반가의 음식·일반 서민의 소박한 음식·향토음식 등이 어우러져 우리 민족의 생활여건에 가장 알맞게 창안하여 발달시켜 왔으며, 전통 상차림은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식생활을 정립하면서 오행사상(五行事象)에 의한 규범·규격을 형성하여 일상 생활화시켰다.

먼저 전통음식의 인식도(표 4)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주부의 교육수준(p<0.01), 주부의 연령(p<0.001), 가족수(p<0.05), 주부의 고향(p<0.001) 및 결혼경과년수(p<0.001)이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은 가장의 직업, 가정의 수입 및 종교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연변 주부들의 경우³⁾ 가계의 월소득, 주부의 직업 및 주부의 교육수준이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 척도와 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부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집단은 초등졸로서 40.5%이며 다음이 무학(35.1%), 중졸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고졸이었다. 주부의 연령은 51세 이상이 52.7%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이는 31~40세의 2.4배, 41~50세의 2.6배를 차지하였다. 가족수와 전통음식의 인식도에 있어서 5인 이상이 42.9%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2인, 3~4인 순이었으며, 주부의 고향은 한산면이 56.3%, 기타 지역이 46.3%를 차지하였다. 결혼경과년수와의 상관관계는 20년 이하가 33.1%, 21~30년과 31~40년은 동일하게 21.4%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도를 하위 영역별

로 분석해 보면 주부의 교육수준은 전통음식(명절·의례)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초등졸이 30.6%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중졸의 6.8배이며 다음 무학으로써 23.4%를 차지하였는데 장 등¹⁰⁾의 조사에서도 학력이 낮은 층이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집단은 7.2~9.0%, “모른다”는 0.9~2.7%의 범위를 나타냈다. 주부의 연령은 “알고 있다”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은 51세 이상으로 42.0%로 나타나 41~50세의 3.1배, 31~40세의 7.8배이며 무학은 한명도 나타나지 않아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연변³⁾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은 평균치를 기록한 것과는 반대의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조금 알고 있다”의 경우 가장 높은 집단은 31~40세, 가장 낮은 집단은 무학이었다.

가족수의 경우 1~2인은 “알고 있다”가 23.2%, 5인 이상은 25%로 3~4인의 2배를 차지하였다. 주부의 고향은 한산면의 경우 전통음식에 대하여 아는 정도가 “조금 알고 있다”의 응답이 “알고 있다”(42.9%)는 응답의 약 1/4에 해당하였다. 결혼경과년수는 20년 이하의 경우 “조금 알고 있다”(18.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그 외 다른 집단들은 모두 “알고 있다”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는데 41년 이상이 20.5%, 21~30세와 31~40세가 동등하게 21.4%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변인에 있어서 “알고 있다”가 60.4~61.3%의 범위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다음이 “조금 알고 있다”로 14.4~31.5%의 범위이며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모른다”로 3.6~8.2%의 범위이었다. 이 등¹⁰⁾의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잘 알고 있다”가 본 조사의 1/3 정도이며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본 조사의 2.1배이므로 한산 지역 주부들이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도를 각 상황변인들과 관계지어 보면(표 4)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변이는 주부의 연령(p<0.05)과 종교(p<0.01)로 나타났으며 그 외 가장의 직업, 주부의 교육수준, 가족수 및 결혼경과년수 등은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같은 섬 지역인 울릉도²⁾는 가장의 직업, 주부의 학력 및 주부의 연령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중국 연변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한 경우³⁾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변이는 주부의 직업, 주부의 월소득 및 주부의 연령으로 나타나 울릉도²⁾, 중국 연변³⁾, 한산도 세 지역 모두 주부의 연령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이를 각 변인별로 살펴보면 주부의 연령에 있어서 가

표 4. 전통음식과 전통상차림(명절·의례)에 대한 인식도

변인	구분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도				계	χ^2 -value	전통상차림에 대한 인식도				계	χ^2 -value
		모른다	조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모른다	조금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가장의 직업	농업	1(0.9)	6(5.4)	18(16.1)	25(22.3)	5.15	5.15	7(6.3)	4(3.6)	14(12.5)	25(22.3)	6.10	
	어업	5(4.5)	16(14.3)	30(26.8)	51(45.5)			15(13.4)	6(5.4)	30(26.8)	51(45.5)		
	봉급자	1(0.9)	7(6.3)	5(4.5)	13(11.6)			2(1.8)	5(4.5)	6(5.4)	13(11.6)		
	상업 및 기타	2(1.8)	6(5.4)	15(13.4)	23(20.5)			6(5.4)	6(5.4)	11(9.8)	23(20.5)		
	계	9(8.0)	35(31.3)	68(60.7)	112(100.0)			30(26.8)	21(18.8)	61(54.5)	112(100.0)		
가계의 월소득	20만원 이하	2(1.8)	10(8.9)	23(20.5)	35(31.3)	7.97	7.97	9(8.0)	7(6.3)	19(17.0)	35(31.3)	1.82	
	21~60만원	6(5.4)	10(8.9)	18(16.1)	34(30.4)			10(8.9)	7(6.3)	17(15.2)	34(30.4)		
	61~100만원	1(0.9)	14(12.5)	22(19.6)	37(33.0)			9(8.0)	7(6.3)	21(18.8)	37(33.0)		
	101만원 이상	0	1(0.9)	5(4.5)	6(5.4)			2(1.8)	0	4(3.6)	6(5.4)		
	계	9(8.0)	35(31.3)	68(60.7)	112(100.0)			30(23.8)	21(18.8)	61(54.5)	112(100.0)		
주부의 직업	유무	3(2.7)	8(7.3)	18(16.4)	29(26.4)	0.37	0.37	6(5.5)	7(6.4)	16(14.5)	29(26.4)	1.01	
	무	6(5.5)	26(23.6)	49(44.5)	81(73.6)			23(20.9)	14(12.7)	44(40.0)	81(73.6)		
	계	9(8.2)	34(30.9)	67(60.9)	110(100.0)			29(26.4)	21(19.1)	60(54.5)	110(100.0)		
주부의 교육수준	무학	3(2.7)	10(9.0)	26(23.4)	39(35.1)	20.45**	20.45**	10(9.0)	4(3.6)	25(22.5)	39(35.1)	7.51	
	초등졸	2(1.8)	9(8.1)	34(30.6)	45(40.5)			12(10.8)	8(7.2)	25(22.5)	45(40.5)		
	중졸	3(2.7)	8(7.2)	5(4.5)	16(14.4)			4(3.6)	6(5.4)	6(5.4)	16(14.4)		
	고졸	1(0.9)	8(7.2)	2(1.8)	11(9.9)			4(3.6)	3(2.7)	4(3.6)	11(9.9)		
	계	9(8.1)	35(31.5)	67(60.4)	111(100.0)			30(27.0)	21(18.9)	60(54.1)	111(100.0)		
주부의 연령	30세 이하	2(1.8)	3(2.7)	0	5(4.5)	34.76***	34.76***	3(2.7)	2(1.8)	0	5(4.5)	14.04*	
	31~40세	3(2.7)	16(14.3)	6(5.4)	25(22.3)			8(7.1)	8(7.1)	9(8.0)	25(22.3)		
	41~50세	1(0.9)	7(6.3)	15(13.4)	23(20.5)			7(6.3)	2(1.8)	14(12.5)	23(20.3)		
	51세 이상	3(2.7)	9(8.0)	47(42.0)	59(52.7)			12(10.7)	9(8.0)	38(33.9)	59(52.7)		
	계	9(8.0)	35(31.3)	68(60.7)	112(100.0)			30(26.8)	21(18.8)	61(54.5)	112(100.0)		
가족수	1~2인	4(3.6)	4(3.6)	26(23.2)	34(30.4)	9.94*	9.94*	9(8.0)	3(2.7)	22(19.6)	34(30.4)	6.77	
	3~4인	2(1.8)	14(12.5)	14(12.5)	30(26.8)			5(4.5)	9(8.0)	16(14.3)	30(26.8)		
	5인 이상	3(2.7)	17(15.2)	28(25.0)	48(42.9)			16(14.3)	9(8.0)	23(20.5)	48(42.9)		
	계	9(8.0)	35(31.3)	68(60.7)	112(100.0)			30(26.8)	21(18.8)	61(54.5)	112(100.0)		
종교	불교	6(5.4)	26(23.2)	46(41.1)	78(69.6)	6.33	6.33	16(14.3)	15(13.4)	47(42.0)	78(69.6)	12.55**	
	기독교	0	6(5.4)	15(13.4)	21(18.8)			12(10.7)	3(2.7)	6(5.4)	21(18.8)		
	기타	3(2.7)	3(2.7)	7(6.3)	13(11.6)			2(1.8)	3(2.7)	8(7.1)	13(11.6)		
	계	9(8.0)	35(31.3)	68(60.7)	112(100.0)			30(26.8)	21(18.8)	61(54.5)	112(100.0)		
가족형태	핵가족	9(8.2)	22(20.0)	52(47.3)	83(75.5)	5.22	5.22	19(17.3)	15(13.6)	49(44.5)	83(75.5)	2.33	
	시댁동거	0	12(10.9)	15(13.6)	27(24.5)			10(9.1)	5(4.5)	12(10.9)	27(24.5)		
	계	9(8.2)	34(30.9)	67(60.9)	110(100.0)			29(26.4)	20(18.2)	61(55.5)	110(100.0)		
주부의 고향	한산면	2(1.8)	13(11.6)	48(42.9)	63(56.3)	15.11***	15.11***	17(15.2)	8(7.1)	38(33.9)	63(56.3)	3.72	
	기타	7(6.3)	22(19.6)	20(17.9)	49(43.8)			13(11.6)	13(11.6)	23(20.5)	49(43.8)		
	계	9(8.0)	35(31.3)	68(60.7)	112(100.0)			30(26.8)	21(18.8)	61(54.5)	112(100.0)		
결혼 경과년수	20년 이하	5(4.5)	21(18.8)	11(9.8)	37(33.0)	24.13***	24.13***	12(10.7)	11(9.8)	14(12.5)	37(33.0)	9.45	
	21~30년	2(1.8)	5(4.5)	17(15.2)	24(21.4)			7(6.3)	2(1.8)	15(13.4)	24(21.4)		
	31~40년	1(0.9)	6(5.4)	17(15.2)	24(21.4)			7(6.3)	4(3.6)	13(11.6)	24(21.4)		
	41년 이상	1(0.9)	3(2.7)	23(20.5)	27(24.1)			4(3.6)	4(3.6)	19(17.0)	27(24.1)		
	계	9(8.0)	35(31.3)	68(60.7)	112(100.0)			30(26.8)	21(18.8)	61(54.5)	112(100.0)		
머느리 서열	만머느리	4(3.6)	16(14.4)	40(36.0)	61(54.1)	1.66	1.66	12(10.8)	12(10.8)	36(32.4)	60(54.1)	3.32	
	기타	4(3.6)	19(17.1)	28(25.2)	51(45.9)			18(16.2)	9(8.1)	24(21.6)	51(45.9)		
	계	8(7.2)	35(31.5)	68(61.3)	111(100.0)			30(27.0)	21(18.9)	60(54.1)	111(100.0)		

*p<0.05 **p<0.01 ***p<0.001.

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집단은 51세 이상으로써 52.7%를 차지하였는데 울릉도²⁾와 서울 및 경기 일부지역¹⁰⁾의 경우도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중국 연변³⁾은 39세 이하가 가장 높은 평균치(3.00)를 기록하여 차이를 보였다. 다음이 31~40세(22.3%), 41~50세(20.3%) 그리고 가장 낮은 수치는 30세 이하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도와 그 비율이나 순위가 동일하였다. 이를 하위 영역별로 분석해 보면 51세 이상의 경우 "알고있다"가 3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41~50세이었으며 30세 이하는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비율이 감소하여 전통음식의 경우와 같은 경향을 보여 주었다. 중국 연변 주부들의 경우³⁾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은 평균치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이 등¹³⁾의 반상차림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8.1%로써 "약간 알고 있다"의 약 1/4이었으며 대구¹¹⁾의 조사에서는 전통 상차림은 "조금 아는 편이다"와 "거의 모른다"가 69.3%로 본 연구인 한산도(45.6%)의 경우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부의 종교와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불교(69.6%)로 나타났으며 다음이 기독교로서 불교의 약 1/4이며 기타 종교가 11.6%를 차지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불교는 "잘 알고 있다"가 42%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이 모른다(14.3%), "조금 알고 있다"의 순이며, 기독교의 경우는 모른다가 10.7%로 가장 높으며 이는 "알고 있다"의 2배이었다.

한산도 지역의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도의 전체적인 경향은 "알고 있다"가 전 변인을 통해서 51.4~55.5%의 범주이며 "모른다"는 23.8~27.0%, "조금 알고 있다"는 18.2~19.1%의 범위로 파악되었다. 울릉도²⁾의 경우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도에서 "잘 알고 있다"가 본 조사의 약 1/2이며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본 조사의 1.6배에 해당하였다. 또 대구 지역¹¹⁾과 비교하여 보면 잘 알고 있는 경우 본 연구의 한산도가 대구 지역¹¹⁾의 약 1.8배이고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울릉도²⁾와 같은 1.6배이었다. 따라서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도는 전통음식과 마찬가지로 한산 지역의 인식도가 높은 경향으로 파악되었다.

6. 가정에서 시행하는 명절풍속의 실태

우리의 명절과 세시풍속은 대체적으로 두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하나인 명절은 제일(齊日)이며 다른

하나는 재앙과 화를 물리치기 위한 행사이었다.

한산도 지역의 각 가정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명절을 수에 제한없이 응답하도록 하여 얻은 결과는 표 5와 같다. 설날이 99.1%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이 추석(92.0%), 정월대보름(86.6%), 동지(75.9%), 사월초파일(4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²⁾, 강원도^{7,20)} 및 청주²¹⁾와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각 명절별로 시행하고 있는 시절식을 살펴보면 한산도에서 가장 많이 지내고 있는 설날은 박³⁾, 임⁷⁾, 조 등¹¹⁾과 김²⁰⁾ 및 설 등²¹⁾의 조사에서는 98~100%의 분포를 보여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추석은 같은 섬 지역인 울릉도²⁾의 1.2배로써 더 많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중국 연변³⁾과는 비슷하고 강릉·대구·대전·전주⁵⁾, 강원^{7,20)}, 대구¹¹⁾ 및 청주²¹⁾보다는 5~10% 정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정월대보름의 경우 울릉도²⁾와 강원도²⁰⁾보다는 16% 정도 높고 박³⁾, 김 등⁵⁾ 임⁷⁾, 조 등¹¹⁾ 및 설 등²¹⁾보다는 3~6%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동지는 울릉도⁴⁾(44.4%), 강릉 등⁵⁾ 강원도²⁰⁾보다는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30~34% 정도), 연변 조선족³⁾ 및 청주 지역²¹⁾과는 비슷한 비율이며 조 등¹¹⁾보다는 14%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사월초파일은 울릉도²⁾(21.6%), 연변 조선족³⁾, 김 등⁵⁾, 임⁷⁾, 조 등¹¹⁾, 김²⁰⁾ 및 설 등²¹⁾보다 36% 정도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한산도의 경우 그 외 다른 명절들은 시행도가 매우 낮아서 1~6%의 저조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5대 명절(설, 한식, 단오, 추석, 정월대보름) 중 단오와 한식이 각각 5.4%와 6.3%로 고유의 명절이 전승되지

표 5. 시행하는 명절 풍속의 실태

명절의 종류	빈도*	백분율(%)
설날	111	99.1
정월대보름	97	86.6
입춘	1	0.9
삼짇날	6	5.4
사월초파일	46	41.1
한식	7	6.3
단오	6	5.4
유두	3	2.7
중원(백중)	2	1.8
칠석	7	6.3
삼복	1	0.9
추석	103	92.0
중구절(중양절)	3	2.7
오일(午日)	1	0.9
동지	85	75.9
납뽕(납향, 납인)	2	1.8
기타	3	2.7

*빈도는 조사대상자 112명이 수에 제한없이 시행하는 명절을 답한 수치임.

못하고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의 전통 세시 풍속의 전래를 위하여 가정과 학교교육 및 지역사회 의 행사로써 그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7. 전통음식의 계승·발전에 대한 인식

최근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 청소년 및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전통음식을 기피하고 서구식의 패스트푸드 (fast foods) 및 인스턴트식품(instant foods)을 매우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16,19,22,23,24,25,26,27,28)}

이와 같은 사실은 단순히 개인의 식습관과 고유한 식생활문화의 변화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장래 우리의 전통음식의 단절과 함께 한국인의 너그럽고 여유있는 심성(心性)이 사라지고 각종 식원병(食源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 6은 한산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음식의 계승·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전통음식의 계승·발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가계의 월소득($p<0.05$) 및 주부의 직업($p<0.01$)이며, 주부의 연령, 결혼경과년수 등은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연변 조선족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³⁾에서는 결혼경과년수가, 그리고 대구¹⁰⁾의 경우는 주부의 연령이 전통음식의 계승·발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음식의 계승·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가계의 월소득에 있어서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은 월소득 61~100만원(31.3%)이며 이는 101만원 이상의 7배나 된다. 다음은 21~60만원으로써 26.8%를 차지하였으며 20만원 이하는 22.3%이었다. “별로 관심이 없다”고 답한 경우의 가장 높은 비율은 월수입 20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주부의 직업의 경우 직업을 가지지 않는 변인이 66.4%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주부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18.2%)의 약 3.7배에 해당되었다.

전체적인 경향은 각 변인의 집단에 있어서 전통음식 계승·발전에 대한 인식도가 평균 84.8%이므로 전통음식의 계승·발전에 대한 인식도가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 등¹¹⁾의 1.2배이며 박³⁾(91.1%), 서울 시내 일부 남·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조사³⁾(98.9%) 및 대전 지역의 남·여 공학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¹⁴⁾(97.6%)보다는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²⁹⁾(82.9%) 보다는 약간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³⁰⁾에서는 대상자의 95.8%가 명절음식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는 급속한 공업화·산업화로 풍요로워진 식생활, 서구식 식사 양식의 무절제한 도입, 기계화되고 자동화된 현대생활, 여기에 따르는 영양에 관한 그릇된 지식 등이 우리의 전통 식사내용을 변화시키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야기되는 양생들은 현대병·문화병·인조병(人造病) 또는 식원병(食源病)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성인병을 증가시키고 있다.

전통음식은 우리의 민족성과 민족 문화성이 깃들여 있고 식품의 구성·배합, 다양한 조리법 구사로 영양상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의식동원(醫食同源)이라는 견지에서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막아주는 과학성과 합리성이 있으므로 우리의 전통음식을 발전시켜 계승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전통음식의 개선·개량 등의 재정립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8. 전통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우리의 전통음식에 이용되고 있는 식품의 종류는 주·부식 등 이천오백팔십 여종의 품목이나 되며, 전통 반상차림은 반찬의 가짓수에 따라 첩의 수(3, 5, 7, 9, 12첩)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 식판구성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어서 영양면에서 매우 과학적이며 완벽에 가깝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을 구사하고 균형된 식단을 구성하며 영양면에서 완벽하고 과학적인 우리의 전통음식을 한산 지역 주부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좋아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통음식을 좋아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부의 연령($p<0.01$)과 며느리 서열($p<0.05$)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인은 가정의 직업, 주부의 교육수준 및 결혼경과년수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주부의 연령의 경우 “맛에 익숙해서”의 항목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51세 이상으로서 47.7% 다음이 41~51세로 19.8%, 31~40세가 11.7%를 차지하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값이 감소하였다. “맛이 좋아서”라는 응답은 31~40세가 가장 높았고 30세 이하의 응답자가 없었으며, “영양이 좋아서”의 경우는 30세 이하와 41~50세에서 응답자가 없었다.

며느리 서열은 “맛에 익숙해서”의 경우 만며느리가 48.1%이고 기타 35.5%를 기록하였으며, “맛이 좋아서”는 기타가 9.1%로 높았고 “영양이 좋아서”는 만며느리가 약간 높게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부의 연령의 경우 “맛이 좋아

표 6. 전통음식의 계승·발전에 대한 의견

변인	구분	계승·발전 시켜야 한다	별로 관심이 없다	계	χ^2 -value
		빈도(%)	빈도(%)		
가장의 직업	농업	22(19.6)	3(2.7)	25(22.3)	1.05
	어업	44(39.3)	7(6.3)	51(45.5)	
	봉급자	11(9.8)	2(1.8)	13(11.6)	
	상업 및 기타	18(16.1)	5(4.5)	23(20.5)	
	계	95(84.8)	17(15.2)	112(100.0)	
가계의 월소득	20만원 이하	25(22.3)	10(8.9)	35(31.3)	7.94*
	21~60만원	30(26.8)	4(3.6)	34(30.4)	
	61~100만원	35(31.3)	2(1.8)	37(33.0)	
	101만원 이상	5(4.5)	1(0.9)	6(5.4)	
	계	95(84.8)	17(15.2)	112(100.0)	
주부의 직업	유부	20(18.2)	9(8.2)	29(26.4)	7.32**
	무부	73(66.4)	8(7.3)	81(73.6)	
	계	93(84.5)	17(15.5)	110(100.0)	
주부의 교육수준	무학	33(29.7)	6(5.4)	39(35.1)	0.48
	초등졸	38(34.2)	7(6.3)	45(40.5)	
	중졸	13(11.7)	3(2.7)	16(14.4)	
	고졸	10(9.0)	1(0.9)	11(9.9)	
	계	94(84.7)	17(15.3)	111(100.0)	
주부의 연령	30세 이하	4(3.6)	1(0.9)	5(4.5)	1.29
	31~40세	20(17.9)	5(4.5)	25(22.3)	
	41~50세	21(18.8)	2(1.8)	23(20.5)	
	51세 이상	50(44.6)	9(8.0)	59(52.7)	
	계	95(84.8)	17(15.2)	112(100.0)	
가족수	1~2인	27(24.1)	7(6.3)	34(30.4)	1.41
	3~4인	27(24.1)	3(2.7)	30(26.8)	
	5인 이상	41(36.6)	7(6.3)	48(42.9)	
	계	95(84.8)	17(15.2)	112(100.0)	
종교	불교	67(59.8)	11(9.8)	78(69.6)	1.85
	기독교	16(14.3)	5(4.5)	21(18.8)	
	기타	12(10.7)	1(0.9)	13(11.6)	
	계	95(84.8)	17(15.2)	112(100.0)	
가족형태	핵가족	71(64.5)	12(10.9)	83(75.5)	.
	시댁동거	23(20.9)	4(3.6)	27(24.5)	
	계	94(85.5)	16(14.5)	110(100.0)	
주부의 고향	한산면	56(50.0)	7(6.3)	63(56.3)	1.85
	기타	39(34.8)	10(8.9)	49(43.8)	
	계	95(84.8)	17(15.2)	112(100.0)	
결혼경과년수	20년 이하	31(27.7)	6(5.4)	37(33.0)	1.50
	21~30년	22(19.6)	2(1.8)	24(21.4)	
	31~40년	19(17.0)	5(4.5)	24(21.4)	
	41년 이상	23(20.5)	4(3.6)	27(24.1)	
	계	95(84.8)	17(15.2)	112(100.0)	
머느리서열	맡머느리	50(45.0)	10(9.0)	60(54.1)	0.18
	기타	44(39.6)	7(6.3)	51(45.9)	
	계	94(84.7)	17(15.3)	111(100.0)	

*p<0.05, **p<0.01.

표 7. 전통음식을 좋아하는 이유

변인	구분	영양이 좋아서	맛이 좋아서	맛이 익숙해서	계	χ^2 -value
		빈도(%)	빈도(%)	빈도(%)		
가장의 직업	농업	0	3(2.7)	22(19.8)	25(22.5)	11.41
	어업	2(1.8)	5(4.5)	44(39.6)	51(45.9)	
	봉급자	0	4(3.6)	9(8.1)	13(11.7)	
	상업 및 기타	3(2.7)	1(0.9)	18(16.2)	22(19.8)	
	계	5(4.5)	13(11.7)	93(83.8)	111(100.0)	
가계의 월소득	20만원 이하	2(1.8)	2(1.8)	31(27.9)	35(31.5)	4.08
	21~60만원	1(0.9)	6(5.4)	26(23.4)	33(29.7)	
	61~100만원	2(1.8)	5(4.5)	30(27.0)	37(33.3)	
	101만원 이상	0	0	6(5.4)	6(5.4)	
	계	5(4.5)	13(11.7)	93(83.8)	111(100.0)	
주부의 직업	유	0	3(2.8)	25(22.9)	28(25.7)	1.93
	무	5(4.6)	10(9.2)	66(60.6)	81(74.3)	
	계	5(4.6)	13(11.9)	91(83.5)	109(100.0)	
주부의 교육수준	무학	1(0.9)	2(1.8)	36(32.7)	39(35.5)	10.95
	초등졸	2(1.8)	4(3.6)	39(35.5)	45(40.9)	
	중졸	1(0.9)	3(2.7)	11(10.0)	15(13.6)	
	고졸	1(0.9)	4(3.6)	6(5.5)	11(10.0)	
	계	5(4.5)	13(11.8)	92(83.6)	110(100.0)	
주부의 연령	30세 이하	0	0	5(4.5)	5(4.5)	20.60**
	31~40세	3(2.7)	8(7.2)	13(11.7)	24(21.6)	
	41~50세	0	1(0.9)	22(19.8)	23(20.7)	
	51세 이상	2(1.8)	4(3.6)	53(47.7)	59(53.2)	
	계	5(4.5)	13(11.7)	93(83.8)	111(100.0)	
가족수	1~2인	1(0.9)	1(0.9)	32(28.8)	34(30.6)	4.54
	3~4인	1(0.9)	5(4.5)	24(21.6)	30(27.0)	
	5인 이상	3(2.7)	7(6.3)	37(33.3)	47(42.3)	
	계	5(4.5)	13(11.7)	93(83.8)	111(100.0)	
종교	불교	4(3.6)	11(9.9)	62(55.9)	77(69.4)	3.23
	기독교	0	1(0.9)	20(18.0)	21(18.9)	
	기타	1(0.9)	1(0.9)	11(9.9)	13(11.7)	
	계	5(4.5)	13(11.7)	93(83.8)	111(100.0)	
가족형태	핵가족	4(3.7)	10(9.2)	69(63.3)	83(76.1)	0.45
	시댁동거	1(0.9)	2(1.8)	23(21.1)	26(23.9)	
	계	5(4.6)	12(11.0)	92(84.4)	109(100.0)	
주부의 교향	한산면	2(1.8)	5(4.5)	56(50.5)	63(56.8)	2.80
	기타	3(2.7)	8(7.2)	37(33.3)	48(43.2)	
	계	5(4.5)	13(11.7)	93(83.8)	111(100.0)	
결혼경과년수	20년 이하	2(1.8)	9(8.1)	25(22.5)	36(32.4)	10.46
	21~30년	1(0.9)	0	23(20.7)	24(21.6)	
	31~40년	1(0.9)	2(1.8)	21(18.9)	24(21.6)	
	41년 이상	1(0.9)	2(1.8)	24(21.6)	27(24.3)	
	계	5(4.5)	13(11.7)	93(83.8)	111(100.0)	
머느리서열	만머느리	3(2.7)	3(2.7)	54(48.1)	60(54.5)	6.33*
	기타	1(0.9)	10(9.1)	39(35.5)	50(45.5)	
	계	4(3.6)	13(11.8)	93(84.5)	110(100.0)	

*p<0.05, **p<0.01.

서”라는 응답이 8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경기도·강원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¹³⁾, 대전지역 대학생을 조사¹⁴⁾한 결과와 동일하였으며 연변 조선족 주부들³⁾은 “맛이 좋아서”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51세 이상으로 53.2%이며 31~40세와 41~50세는 각각 21.6%와 20.7%로 비슷하였다. 며느리 서열에 있어서 가장 높게 기록한 항목은 “맛이 익숙해서”가 8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맛이 좋아서”(11.8%)의 순이며 전체적으로 맘머느리가 54.5%로서 기타보다 9%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9.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구미에서는 우리 전래의 밥 위주의 균형식을 건강식(healthy diet), 자연식(natural diet)이라하여 널리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전통음식에 대하여 한산 지역 주부들은 과연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8에 표시하였다. 유의적으로 나타난 변인은 주부의 고향(p<0.05)뿐이고 나머지 가계의 월소득, 주부의 직업 및 연령, 가족수 등은 유의성 없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유의성을 나타낸 변인인 주부의 고향에 있어서 고향이 한산면인 경우 4.48 기타 지역이 4.20의 높은 평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변인의 평균 평균치 4.34~4.36를 나타내어 한산 지역 주부들이 전통음식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시내 일부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⁹⁾에서는 전통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8.8%,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3.9% 아주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여 고유의 전통음식을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서울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³⁰⁾에서도 여러 가지 식사 형태 중 밥류가 3끼 모두 70.9~92.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전통음식을 좋게 평가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연변 지역 주부들의 경우³⁾는 전통음식에 대한 변인간 평균 평균치가 1.99~2.02로 나타나 본 조사의 한산 지역의 1/2 정도의 낮은 평균치를 기록하였다.

10. 전통음식의 이용도(명절·행사시)

표 9는 명절·행사시 전통음식과 외래음식의 이용실태에 대한 현황을 알아본 결과이다. 명절 때 전통·외래음식의 이용도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주부의 고향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가정의 직업, 가정의 수입, 주부의 교육수준, 가족수 및 결혼

표 8.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변인	구분	전통음식에 대한 평가		F-value
		빈도	평균(표준편차)	
가장의 직업	농업	25	4.28(0.68)	0.33
	어업	51	4.41(0.78)	
	봉급자	13	4.23(0.73)	
	상업 및 기타	23	4.39(0.72)	
	계	112	4.36(0.73)	
가계의 월소득	20만원 이하	35	4.20(0.72)	1.04
	21~60만원	34	4.38(0.70)	
	61~100만원	37	4.43(0.80)	
	101만원 이상	6	4.67(0.52)	
	계	112	4.34(0.73)	
주부의 직업	유	29	4.14(0.92)	3.20
	무	81	4.42(0.65)	
	계	110	4.35(0.73)	
주부의 교육수준	무학	39	4.33(0.66)	0.35
	초등졸	45	4.42(0.81)	
	중졸	16	4.31(0.70)	
	고졸	11	4.18(0.75)	
	계	111	4.35(0.73)	
주부의 연령	30세 이하	5	3.80(0.84)	1.84
	31~40세	25	4.24(0.72)	
	41~50세	23	4.57(0.51)	
	51세 이상	59	4.37(0.79)	
	계	112	4.36(0.73)	
가족수	1~2인	34	4.29(0.91)	1.22
	3~4인	30	4.23(0.68)	
	5인 이상	48	4.48(0.62)	
	계	112	4.36(0.73)	
종교	불교	78	4.38(0.67)	1.36
	기독교	21	4.14(0.91)	
	기타	13	4.54(0.78)	
	계	112	4.36(0.73)	
가족형태	핵가족	83	4.34(0.77)	0.44
	시댁동거	27	4.44(0.58)	
	계	110	4.36(0.73)	
주부의 고향	한산면	63	4.48(0.76)	3.89*
	기타	49	4.20(0.68)	
	계	112	4.36(0.73)	
결혼 경과년수	20년 이하	37	4.24(0.68)	1.03
	21~30년	24	4.50(0.59)	
	31~40년	24	4.25(0.74)	
	41년 이상	27	4.48(0.89)	
	계	112	4.36(0.73)	
며느리 서열	맘머느리	60	4.28(0.78)	1.12
	기타	51	4.43(0.67)	
	계	111	4.35(0.73)	

*p<0.05.

표 9. 전통·외래음식의 이용도(명절, 행사시)

변인	구분	명절시 전통·외래음식의 이용도			χ^2 -value	행사시 전통·외래음식의 이용도			χ^2 -value
		전통·외래 음식의 혼용	전통음식	계		전통·외래 음식의 혼용	전통음식	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가장의 직업	농업	0	25(22.3)	25(22.3)	3.16	1(0.9)	24(21.6)	25(22.5)	2.30
	어업	6(5.4)	45(40.2)	51(45.5)		8(7.2)	43(38.7)	51(45.9)	
	봉급자	1(0.9)	12(10.7)	13(11.6)		2(1.8)	10(9.0)	12(10.8)	
	상업 및 기타	2(1.8)	21(18.8)	23(20.5)		3(2.7)	20(18.0)	23(20.7)	
	계	9(8.0)	103(92.0)	112(100.0)		14(12.6)	97(87.4)	111(100.0)	
가계의 월소득	20만원 이하	1(0.9)	34(30.4)	35(31.3)	2.51	2(1.8)	33(29.7)	35(31.5)	2.28
	21~60만원	4(3.6)	30(26.8)	34(30.4)		5(4.5)	29(26.1)	34(30.6)	
	61~100만원	3(2.7)	34(30.4)	37(33.0)		6(5.4)	30(27.0)	36(32.4)	
	101만원 이상	1(0.9)	5(4.5)	6(5.4)		1(0.9)	5(4.5)	6(5.4)	
	계	9(8.0)	103(92.0)	112(100.0)		14(12.6)	97(87.4)	111(100.0)	
주부의 직업	유무	3(2.7)	26(23.6)	29(26.4)	0.25	5(4.6)	23(21.1)	28(25.7)	0.85
	계	6(5.5)	75(68.2)	81(73.6)		9(8.3)	72(66.1)	81(74.3)	
	계	9(8.2)	101(91.8)	110(100.0)		14(12.8)	95(87.2)	109(100.0)	
주부의 교육수준	무학	2(1.8)	37(33.3)	39(35.1)	5.21	2(1.8)	37(33.6)	39(35.5)	6.85
	초등졸	2(1.8)	43(38.7)	45(40.5)		5(4.5)	40(36.4)	45(40.9)	
	중졸	3(2.7)	13(11.7)	16(14.4)		4(3.6)	11(10.0)	15(13.6)	
	고졸	2(1.8)	9(8.1)	11(9.9)		3(2.7)	8(7.3)	11(10.0)	
	계	9(8.1)	102(91.9)	111(100.0)		14(12.7)	96(87.3)	110(100.0)	
주부의 연령	30세 이하	1(0.9)	4(3.6)	5(4.5)	2.05	2(1.8)	3(2.7)	5(4.5)	6.11
	31~40세	3(2.7)	22(19.6)	25(22.3)		5(4.5)	19(17.1)	24(21.6)	
	41~50세	1(0.9)	22(19.6)	23(20.5)		2(1.8)	21(18.9)	23(20.7)	
	51세 이상	4(3.6)	55(49.1)	59(52.7)		5(4.5)	54(48.6)	59(53.2)	
	계	9(8.0)	103(92.0)	112(100.0)		14(12.6)	97(87.4)	111(100.0)	
가족수	1~2인	1(0.9)	33(29.5)	34(30.4)	2.56	1(0.9)	33(29.7)	34(30.6)	4.56
	3~4인	2(1.8)	28(25.0)	30(26.8)		4(3.6)	25(22.5)	29(26.1)	
	5인 이상	6(5.4)	42(37.5)	48(42.9)		9(8.1)	39(35.1)	48(43.2)	
	계	9(8.0)	103(92.0)	112(100.0)		14(12.6)	97(87.4)	111(100.0)	
종교	불교	7(6.3)	71(63.4)	78(69.6)	1.29	9(8.1)	69(62.2)	78(70.3)	1.36
	기독교	2(1.8)	19(17.0)	21(18.8)		4(3.6)	16(14.4)	20(18.0)	
	기타	0	13(11.6)	13(11.6)		1(0.9)	12(10.8)	13(11.7)	
	계	9(8.0)	103(92.0)	112(100.0)		14(12.6)	97(87.4)	111(100.0)	
가족형태	핵가족	5(4.5)	78(70.9)	83(75.5)	2.10	8(7.3)	74(67.9)	82(75.2)	2.82
	시댁동거	4(3.6)	23(20.9)	27(24.5)		6(5.5)	21(19.3)	27(24.8)	
	계	9(8.2)	101(91.8)	110(100.0)		14(12.8)	95(87.2)	109(100.0)	
주부의 고향	한산면	1(0.9)	62(55.4)	63(56.3)	8.10**	3(2.7)	59(53.2)	62(55.9)	7.70**
	기타	8(7.1)	41(36.6)	49(43.8)		11(9.9)	38(34.2)	49(44.1)	
	계	9(8.0)	103(92.0)	112(100.0)		14(12.6)	97(87.4)	111(100.0)	
결혼 경과년수	20년 이하	6(5.4)	31(27.7)	37(33.0)	5.01	9(8.1)	27(24.3)	36(32.4)	7.63*
	21~30년	1(0.9)	23(20.5)	24(21.4)		2(1.8)	22(19.8)	24(21.6)	
	31~40년	1(0.9)	23(20.5)	24(21.4)		1(0.9)	23(20.7)	24(21.6)	
	41년 이상	1(0.9)	26(23.2)	27(24.1)		2(1.8)	25(22.5)	27(24.3)	
	계	9(8.0)	103(92.0)	112(100.0)		14(12.6)	97(87.4)	111(100.0)	
머느리 서열	만머느리	5(4.5)	55(49.5)	60(54.1)	0.01	7(6.4)	53(48.2)	60(54.5)	0.13
	기타	4(3.6)	47(42.3)	51(45.9)		7(6.4)	43(39.1)	50(45.5)	
	계	9(8.1)	102(91.9)	111(100.0)		14(12.7)	96(87.3)	110(100.0)	

*p<0.05 **p<0.01

경과연수 등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인인 주부의 고향($p < 0.01$)에 있어서 고향이 한산면인 경우 전통음식의 이용율이 55.4%로 나타나 주부의 고향이 기타 지역인 경우보다 21.8%나 높게 나타났다. 중국 연변 조선족의 경우³⁾ 중국에서 태어난 주부들의 경우(76.4%)가 남한과 북한에서 태어난 주부들보다 전통음식의 이용도가 약 52.8% 높게 나타나 2세, 3세대 주부들의 경우가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 이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통과 외래음식을 혼용하는 경우는 기타 지역(7.1%)이 한산면의 약 7.9배이었으며, 한산도의 경우 외래음식만을 이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시 전통·외래음식의 이용도(표 9)를 살펴보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변인은 주부의 고향($p < 0.01$)과 결혼경과연수($p < 0.05$)이며 가장의 직업, 가계의 월소득, 주부의 교육수준 및 가족수 등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변인 주부의 고향은 행사시 전통음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한산면의 경우 53.2%를 차지하여 한산면에 거주하면서 고향이 타지역인 경우보다 19% 더 높게 나타났다. 중국 연변 조선족 주부들의 경우³⁾ 중국이 고향인 경우 전통음식의 이용(57.1%)이 남한과 북한(14.3%)보다 더 높게 나타나 명절시와 같은 경향을 보여 주었다. 상황변수 결혼경과연수와 전통·외래음식 이용실태와의 관계를 보면 전통음식을 이용하는 경우 20년 이하가 24.3%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다음이 41년 이상, 31~40년, 21~30년의 순으로 그 비율이 소폭으로 감소하였다. 전통·외래를 혼용하는 경우 그 비율이 낮아 0.9~8.1%의 범위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명절·행사시 전통음식의 이용도에 있어서 명절의 경우 한산면이 고향이라고 응답한 주부는 56.3%, 기타 지역이 43.8%를 차지하였으며 전통음식의 이용도 분포가 91.8~92.0% 범위로써 이는 대구 지역¹⁰⁾의 1.2배 정도이며 전통·외래음식을 혼용하는 집단은 8.0~8.2% 범위로 그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대구지역¹⁰⁾의 약 1/3에 해당하였다. 행사시의 경우 한산면이 고향인 주부는 55.9%, 기타 지역이 44.1%이며 변수 결혼경과연수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결혼경과 20년 이하이고 다음이 41세 이상, 21~40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행사시 전통음식의 이용 분포는 87.2~87.4%(변인 평균)의 범위로 명절 때보다 약간 낮은 비율이며 대구 지역¹⁰⁾의 1.7배에 해당하였다. 혼용하는 집단은 각 변인 평균이 12.6~12.8% 범위로 명절 때보다는 약간 높은 비율이며 조 등¹¹⁾(40.3%)보다는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냈

다. 따라서 명절·행사시 모두 전통음식의 이용은 대구 지역¹⁰⁾보다 높게 혼용은 낮게 파악되었다.

11.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 10은 우리의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외래음식과 비교한 결과이다.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의적으로 나타난 변수는 주부의 직업, 주부의 연령 및 결혼경과연수이며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 변수는 가장의 직업, 주부의 교육수준 및 주부의 고향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각 상황변수별로 살펴보면 주부의 직업($p < 0.05$)의 경우 직업을 가진 주부가 26.4%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평균치 4.00을 기록하였으며, 직업을 갖지 않은 주부가 차지한 비율은 73.6%이며 4.36의 평균치를 기록하였다. 주부의 연령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51세 이상(52.7%)이며 다음이 31~40세(22.3%), 41~50세(20.5%)의 순이었다. 그리고 가장 높은 평균치를 기록한 집단은 4.41을 기록한 51세 이상이며 다음이 41~50세(4.39), 31~40세(4.04)의 순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평균치가 감소하는 경향이였다. 결혼경과연수의 비율 분포에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은 20년 이하(33.1%) 다음이 41년 이상(24.1%)이며 21~30년과 31~40년은 동등하게 24.1%를 나타냈으며, 가장 높은 평균치를 기록한 집단은 결혼경과연수 41년 이상(4.52)이고 다음이 21~30년(4.46), 31~40년(4.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주부의 직업의 경우 직업을 가지지 않는 집단의 인식도가 높았으며 주부의 연령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인식도가 증가하였다. 결혼경과연수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변화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치의 평균이 4.26~4.28의 범위를 기록하여 한산 지역 주부들의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12. 전통음식의 개발 필요성과 그 이용도

우리 나라는 최근 경제발전과 산업화, 도시화 및 국제문화교류 등에 의한 사회생활의 변화로 식생활 양상과 가치관이 바뀌면서 외국 브랜드의 인스턴트(instants), 패스트푸드(fast foods)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발맞추어 전통식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전통음식의 편익식품화 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1은 한산도 지역의 주부들에게 전통음식의 개

표 10.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도

변인	구분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F-value
		빈도	평균(표준편차)	
가장의 직업	농업	25	4.28(1.06)	0.95
	어업	51	4.31(0.84)	
	봉급자	13	3.92(0.64)	
	상업 및 기타	23	4.39(0.66)	
	계	112	4.28(0.84)	
가계의 월소득	20만원 이하	35	4.31(0.87)	0.42
	21~60만원	34	4.32(0.88)	
	61~100만원	37	4.16(0.83)	
	101만원 이상	6	4.50(0.55)	
	계	112	4.28(0.84)	
주부의 직업	유무	29	4.00(1.00)	3.96*
	무	81	4.36(0.76)	
	계	110	4.26(0.84)	
주부의 교육수준	무학	39	4.36(0.84)	0.81
	초등졸	45	4.33(0.83)	
	중졸	16	4.00(1.03)	
	고졸	11	4.18(0.60)	
	계	111	4.28(0.84)	
주부의 연령	30세 이하	5	3.40(0.89)	3.28*
	31~40세	25	4.04(0.84)	
	41~50세	23	4.39(0.89)	
	51세 이상	59	4.41(0.77)	
	계	112	4.28(0.84)	
가족수	1~2인	34	4.24(0.99)	0.37
	3~4인	30	4.20(0.85)	
	5인 이상	48	4.35(0.73)	
	계	112	4.28(0.84)	
종교	불교	78	4.28(0.87)	0.02
	기독교	21	4.29(0.78)	
	기타	13	4.23(0.83)	
	계	112	4.28(0.84)	
가족형태	핵가족	83	4.25(0.90)	0.18
	시댁동거	27	4.33(0.68)	
	계	110	4.27(0.84)	
주부의 고향	한산면	63	4.35(0.83)	1.07
	기타	49	4.18(0.86)	
	계	112	4.28(0.84)	
결혼 경과년수	20년 이하	37	4.00(0.91)	2.57*
	21~30년	24	4.46(0.72)	
	31~40년	24	4.25(0.99)	
	41년 이상	27	4.52(0.58)	
	계	112	4.28(0.84)	
며느리 서열	말며느리	60	4.27(0.82)	.
	기타	51	4.27(0.87)	
	계	111	4.27(0.84)	

*p<0.05.

발 필요성과 개발한 전통음식의 이용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전통음식의 개발 필요성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주부의 고향(p<0.05)과 며느리 서열(p<0.05)로 나타났으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가장의 직업, 가정의 수입, 주부의 연령, 가족수 및 결혼경과년수 등으로 나타났다. 중국 조선족⁹⁾의 경우는 가장의 직업, 주부의 월소득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부의 고향 및 며느리 서열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전통음식의 개발 필요성에 대한 한산도 주부들의 의식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인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주부의 고향은 한산면이 56.3%이며 기타 지역이 43.8%이었으며 주부의 고향이 한산면인 경우 전통음식을 부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주부가 34.8%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는데, 이는 전통을 준수해야 한다는 약 2.2배, 모르겠다의 5.5배이었다.

한산 지역 주부들은 전통음식을 시대에 맞게 부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등¹³⁾의 조사에서는 부분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비율이 78.8%로 한산도의 약 2.3배이며 류 등³²⁾이 조사한 연변 지역³⁾(용정)은 51.0%, 장 등¹⁰⁾이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주부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73.7%로 본 연구의 2.1배이며 대전 지역¹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48.1%, 서울 시내 일부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⁹⁾는 전통식품의 가공식품화해야 한다는 44.1%로 김 등³³⁾의 조사에서는 전통음식의 편의식품화가 바람직하다고 66.4%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경우가 전통음식의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소극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요즘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 이용실태를 보면 이 등³¹⁾의 조사에서는 주 1~2회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28.6%이며 김²⁸⁾의 경우는 월 2~3회가 23.7%, 주 2회 이상이 16.4%로 나타났다. 도시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의 의식구조²⁷⁾에 대한 조사에서는 패스트푸드의 영향으로 입맛이 서구화되었다(57.7%)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외식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가 27.7%를 기록하였고 또한 이들 외국의 패스트푸드는 지방함량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76.8%). 이와 같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더욱 더 이러한 외래의 식문화에 익숙해질 것이므로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는 현재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식습관(food habit)을 가지게 되어 우리 국민의 식생활과 전통 식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22,34,35)}.

따라서 외래 패스트푸드는 동물성 식품과 기포성

표 11. 전통음식의 개발 필요성과 그 이용도

변인	구분	전통음식의 개발필요성				계	χ^2 -value	개발된 전통음식의 이용도			계	χ^2 -value
		전통을 준수한다	부분적으로 개발한다	모르겠다	계			이용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이용한다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가장의 직업	농업	4(3.6)	19(17.0)	2(1.8)	25(22.3)	5.77	10(8.9)	3(2.7)	12(10.7)	25(22.3)	5.96	
	어업	11(9.8)	36(32.1)	4(3.6)	51(45.5)		26(23.2)	10(8.9)	15(13.4)	51(45.5)		
	봉급자	1(0.9)	12(10.7)	0	13(11.6)		4(3.6)	4(3.6)	5(4.5)	13(11.6)		
	상업 및 기타	7(6.3)	13(11.6)	3(2.7)	23(20.5)		11(9.8)	2(1.8)	10(8.9)	23(20.5)		
계	23(20.5)	80(71.4)	9(8.0)	112(100.0)		51(45.5)	19(17.0)	42(37.5)	112(100.0)			
가계의 월소득	20만원 이하	5(4.5)	25(22.3)	5(4.5)	35(31.3)	8.72	11(9.8)	8(7.1)	16(14.3)	35(31.3)	4.93	
	21~60만원	9(8.0)	22(19.6)	3(2.7)	34(30.4)		16(14.3)	5(4.5)	13(11.6)	34(30.4)		
	61~100만원	6(5.4)	30(26.8)	1(0.9)	37(33.0)		21(18.8)	5(4.5)	11(9.8)	37(33.0)		
	101만원 이상	3(2.7)	3(2.7)	0	6(5.4)		3(2.7)	1(0.9)	2(1.8)	6(5.4)		
계	23(20.5)	80(71.4)	9(8.0)	112(100.0)		51(45.5)	19(17.0)	42(37.5)	112(100.0)			
주부의 직업	유무	7(6.4)	18(16.4)	4(3.6)	29(26.4)	2.37	15(13.6)	6(5.5)	8(7.3)	29(26.4)	1.60	
	계	15(13.6)	61(55.5)	5(4.5)	81(73.6)		35(31.8)	13(11.8)	33(30.0)	81(73.6)		
주부의 교육수준	무학	6(5.4)	28(25.2)	5(4.5)	39(35.1)	3.27	20(18.0)	4(3.6)	15(13.5)	39(35.1)	8.91	
	초등졸	11(9.9)	31(27.9)	3(2.7)	45(40.5)		21(18.9)	6(5.4)	18(16.2)	45(40.5)		
	중졸	3(2.7)	12(10.8)	1(0.9)	16(14.4)		6(5.4)	4(3.6)	6(5.4)	16(14.4)		
	고졸	2(1.8)	9(8.1)	0	11(9.9)		3(2.7)	5(4.5)	3(2.7)	11(9.9)		
계	22(19.8)	80(72.1)	9(8.1)	111(100.0)		50(45.0)	19(17.1)	42(37.8)	111(100.0)			
주부의 연령	30세 이하	0	5(4.5)	0	5(4.5)	9.47	2(1.8)	1(0.9)	2(1.8)	5(4.5)	9.31	
	31~40세	5(4.5)	19(17.0)	1(0.9)	25(22.3)		8(7.1)	9(8.0)	8(7.1)	25(22.3)		
	41~50세	8(7.1)	15(13.4)	0	23(20.5)		10(8.9)	3(2.7)	10(8.9)	23(20.5)		
	51세 이상	10(8.9)	41(36.6)	8(7.1)	59(52.7)		31(27.7)	6(5.4)	22(19.6)	59(52.7)		
계	23(20.5)	80(71.4)	9(8.0)	112(100.0)		51(45.5)	19(17.0)	42(37.5)	112(100.0)			
가족수	1~2인	7(6.3)	22(19.6)	5(4.5)	34(30.4)	3.54	17(15.2)	3(2.7)	14(12.5)	34(30.4)	2.31	
	3~4인	5(4.5)	23(20.5)	2(1.8)	30(26.8)		13(11.6)	6(5.4)	11(9.8)	30(26.8)		
	5인 이상	11(9.8)	35(31.3)	2(1.8)	48(42.9)		21(18.8)	10(8.9)	17(15.2)	48(42.9)		
	계	23(20.5)	80(71.4)	9(8.0)	112(100.0)			51(45.5)	19(17.0)	42(37.5)		112(100.0)
종교	불교	17(15.2)	54(48.2)	7(6.3)	78(69.6)	1.86	36(32.1)	16(14.3)	26(23.2)	78(69.6)	4.53	
	기독교	3(2.7)	16(14.3)	2(1.8)	21(18.8)		8(7.1)	3(2.7)	10(8.9)	21(18.8)		
	기타	3(2.7)	10(8.9)	0	13(11.6)		7(6.3)	0	6(5.4)	13(11.6)		
계	23(20.5)	80(71.4)	9(8.0)	112(100.0)		51(45.5)	19(17.0)	42(37.5)	112(100.0)			
가족형태	핵가족	16(14.5)	60(54.5)	7(6.4)	83(75.5)	0.55	39(35.5)	11(10.0)	33(30.0)	83(75.5)	2.39	
	시댁동거	7(6.4)	18(16.4)	2(1.8)	27(24.5)		11(10.0)	7(6.4)	9(8.2)	27(24.5)		
계	23(20.9)	78(70.9)	9(8.2)	110(100.0)		50(45.5)	18(16.4)	42(38.2)	110(100.0)			
주부의 고향	한산면	17(15.2)	30(34.8)	7(6.3)	63(56.3)	6.44*	33(29.5)	6(5.4)	24(21.4)	63(56.3)	6.19*	
	기타	6(5.4)	41(36.6)	2(1.8)	49(43.8)		18(16.1)	13(11.6)	18(16.1)	49(43.8)		
계	23(20.5)	80(71.4)	9(8.0)	112(100.0)		51(45.5)	19(17.0)	42(37.5)	112(100.0)			
결혼 경과연수	20년 이하	6(5.4)	29(25.9)	2(1.8)	37(33.0)	6.80	12(10.7)	10(8.9)	15(13.4)	37(33.0)	8.03	
	21~30년	7(6.3)	16(14.3)	1(0.9)	24(21.4)		13(11.6)	4(3.6)	7(6.3)	24(21.4)		
	31~40년	2(1.8)	19(17.0)	3(2.7)	24(21.4)		10(8.9)	3(2.7)	11(9.8)	24(21.4)		
	41년 이상	8(7.1)	16(14.3)	3(2.7)	27(24.1)		16(14.3)	2(1.8)	9(8.0)	27(24.1)		
계	23(20.5)	80(71.4)	9(8.0)	112(100.0)		51(45.5)	19(17.0)	42(37.5)	112(100.0)			
머느리 서열	맘머느리	16(14.4)	37(33.3)	7(6.3)	60(54.1)	7.09*	29(26.1)	10(9.0)	21(18.9)	60(54.1)	0.61	
	기타	6(5.4)	43(38.7)	2(1.8)	51(45.9)		21(18.9)	9(8.1)	21(18.9)	51(45.9)		
계	22(19.8)	80(72.1)	9(8.1)	111(100.0)		50(45.0)	19(17.1)	42(37.8)	111(100.0)			

*p<0.05.

음료(junk drink)가 많아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에 편중되는 식이이고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²⁴⁾에서는 간식으로 이용(남: 69.1%, 여: 63.5%)하는 비율이 높아서 청소년 비만 및 불량한 식습관에 의한 성인병의 원인을 제공^{36,37)}하므로 우리 음식의 패스트푸드화 및 인스턴트화가 시급하다. 우리 음식의 패스트푸드화에 좋은 음식으로는 전통음료(63.2%, 식혜·수정과)가 높았으며, 떡류(38.9%), 떡볶기, 부침류, 잡채, 죽류, 전유어로 조사되었다¹⁸⁾.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산도 지역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음식문화에 관한 인지도를 파악함으로써 한산도 지역의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산도 지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 섬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가장 직업은 어업이 가장 높은 비율(45.5%)이며 다음이 농업 그리고 상업 및 기타 어업의 1/2 정도이었다. 소득의 분포는 20만원 이하의 낮은 가계소득이 31.3%로 울릉도²⁾의 3배이고 월소득 60만원 이상은 울릉도²⁾의 2/3 정도로 나타나 경제적 소득이 울릉도²⁾보다 낮은 경향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근현명 어업권을 충무시와 거제시 거주민이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그 고용인은 한산면 주민들이고, 한산면 주민이 경영하는 어업은 그 규모가 영세적이고 주로 양식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울릉도²⁾의 경우 한산도보다 관광지로써 더 알려져 있고 특산물 개발 등 관광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이유 등을 들 수 있겠다.

둘째, 전통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된 모든 변수에 있어서 가정교육이 약 84~85%의 비율로 가장 강한 영향을 끼쳤으며 다음이 취미·관심, 매스컴·책·기타의 순으로 이는 중국 연변³⁾과 대구 지역¹¹⁾과 같은 경향이었다. 전통음식(명절·의례·상용음식)을 배우게 된 경위는 변수 모두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가장 영향을 끼친 요인은 친정 어머니(55.8~60.4%의 범위)이며 다음이 시어머니(31.8~33.6%의 범위)로 나타났다.

셋째, 한산도 지역 주부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통음식이라고 응답한 것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음식은 떡류(74.1%)이며 다음이 식혜(69.4%), 약식(35.7%), 강정(32.1%), 약과(30.4%)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울릉도²⁾, 중국 연변³⁾, 대구 지역^{11,12)}도 역시 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통음식과 전통 상차림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전변인의 비율 분포가 전통음식의 경우 60.7~61.3%, 전통 상차림은 54.1~55.5%의 범위로 그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에서 시행하는 명절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명절은 설날로써 99.1%이며 다음이 추석(92.0%), 정월 대보름(86.6%), 동지(75.9%), 사월 초파일(4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전통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볼 때 “맛이 익숙해서”가 가장 높은 비율(변인의 범위가 83.5~84.5%)이며 “맛이 좋아서”(11.0~11.9%의 범위), “영양이 좋아서”(3.6~4.5%의 범위)의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아졌다. 전통음식을 외래음식과 비교한 평가에 있어서 변인의 평균치가 4.34~4.36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전통음식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전통·외래음식의 이용도는 명절시의 경우 전통음식의 이용이 각 변인을 통하여 91.9~92.0%의 매우 높은 범위를 나타냈으며, 행사시는 전통음식을 이용하는 변인의 범위가 87.2~87.4%의 높은 비율이었다.

명절이나 행사시 모두 외래음식만 이용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국 조선족 주부들³⁾의 경우는 혼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다섯째, 전통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변인의 평균치 범위가 4.26~4.28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전통음식이 건강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fast foods)화의 개발 필요성은 부분적인 개발 필요성이 가장 높은 비율(변인의 범위: 70.9~72.1%)로 나타나 개발의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 수준의 3배 이상이나 되고 있다. 개발한 전통음식의 이용은 개발해야 된다는 비교적 높은 의지와는 달리 “이용하지 않는다”(변인의 범위: 45.0~45.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이용한다”(변인의 범위: 37.3~38.2%)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미루어 전통음식의 학습원과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학교·매스컴 등의 비율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학교교육과 신문·방송 등의 매스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전통음식의 계승·발전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서구화(고지방, 고단백, 고칼로리, 고염식, 고당식 등)와 과잉 영양이 초래하는 성인병의 발생빈도가 국민 보건상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자연식·건강식·영양식인 전통음식의 우월성을 학교교육 및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하고 특히 음식문화는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 전통 음식문

화에 적절히 수용되어 국제화·세계화에 걸맞는 전통 식문화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윤서석: 한국의 식문화 - 한국 식생활문화의 개요, 국민 영양, 2 (1998. 10).
2. 박영선: 울릉도 지역 주부들의 전통음식과 식품급기에 대한 인식, 한국조리과학회지, 10(2), 151 (1994).
3. 박영선: 연변 조선족 주부들의 전통음식과 식품급기에 대한 인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2(2), 103 (1997).
4. 임낭순: 의례음식에 대한 주부의 의식조사 연구 -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 20집, 247 (1984).
5. 김향희, 황춘선: 한국음식의 시행실태에 관한 지역별 비교연구 - 강원·대구·대전·전주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식문화학회지, 6(2), 155 (1991).
6. 송 북: 연변 조선족의 직업과 계층구조 - 이동성과 변환성을 중심으로 -, 중국 조선족 사회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27 (1992).
7. 임낭순: 우리나라 절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1(4), 361 (1986).
8. 윤숙경: 풍기지역 식문화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8(1), 21 (1993).
9. 이효지, 오미야: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의식·지식·기호도 조사 - 서울 시내 남·녀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33(4), 65 (1995).
10. 장은주, 이운경, 이효지: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과 식생활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 서울 및 경기도 일부지역 주부들을 중심으로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2), 179 (1996).
11. 조연숙, 홍상욱, 한재숙: 전통음식에 관한 도시 주부들의 의식조사 연구 -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식문화학회지, 3(3), 281 (1988).
12. 나 철: 절식음식에 관한 도시여성들의 의식동향조사, 계명대학교 비사논문집, 217 (1985).
13. 이영남, 신민자, 김복남: 전통음식의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1), 71 (1991).
14. 구난숙: 대전지역 대학생들의 한국 전통 음식에 대한 인식 및 기호도 조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4), 357 (1995).
15. 모수미, 김창임, 이십열, 윤은경, 이경신, 최경숙: 패스트 푸드의 의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 여의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식문화학회지, 1(3), 295 (1986).
16. 모수미, 천미정, 백수경, 이수경: 패스트 푸드의 의식행동에 관한 2차 실태조사 - 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식문화학회지, 4(1), 83 (1989).
17. 김연수, 정낙원, 이효지: 아동의 식습관과 기호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6(2), 105 (1990).
18. 박성효, 이효지: 서울시내 남·녀 고등학생들의 식습관과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7(1), 67 (1991).
19. 한명주: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패스트푸드의 의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식문화학회지, 7(2), 91 (1992).
20. 김은실: 강원 지역 농촌 주부들의 전통 식생활 습관에 관한 실태조사(II) - 자주 이용하는 전통음식 빈도와 시절식 및 전통 발효 음식 시행유무를 중심으로 -, 한국조리과학회지, 12(1), 82 (1996).
21. 설민영, 김을상, 한양일: 청주 지역 세시 음식에 관한 연구, 한국식문화학회지, 6(3), 257 (1991).
22. 류은순, 광동경: 국내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소비자 의견조사 - 제 1보: 햄버거체인점을 중심으로 -, 한국식문화학회지, 4(3), 229 (1989).
23. 류은순, 류 경: 국내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소비자 의견조사 - 제 2보: 면류 체인점을 중심으로 -, 한국식문화학회지, 4(3), 237 (1989).
24. 김초영, 남순란, 광동경: Fast Foods의 이용실태조사 및 영양밀도 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시내 남·여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한국식문화학회지, 5(3), 361 (1990).
25. 천미정, 김복희, 이경신, 모수미: 패스트 푸드 식당이용자의 식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28(2), 15 (1990).
26. 광동경, 류은순, 남순란, 이혜상, 김성희, 문혜경, 주세영: Fast Foods의 영양에 관한 소비자 및 업체의 의식구조 조사와 영양적 균형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7(3), 37 (1991).
27. 심경희, 김성애: 도시 청소년들의 패스트 푸드의 이용실태 및 의식구조, 한국영양학회지, 26(6), 804 (1993).
28. 김혜경: 울산지역 대학생의 패스트푸드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1), 131 (1996).
29. 박미섭: 한국음식에 대한 여고생의 의식과 기호에 관한 조사 연구 -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30. 윤은숙: 우리나라 명절음식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리과학회지, 11(2), 140 (1995).
31. 이영순, 임아영, 박광희: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식문화에 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4), 369 (1994).
32. 류은순, 류 경: 중국 연변지역 조선족 주부들의 식생활문화에 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3), 327 (1996).
33. 김혜영, 최선희, 주선의: 편의식품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1(1), 71 (1996).
34. 이경애, 장영애, 김우경: 남녀 대학생들의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 및 평가에 관한 연구(I) - 지식 및 섭취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3), 187 (1993).

35. 광동경: Fast foods의 영양에 관한 소비자 및 업체의 의식구조 조사와 영양적 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음식문화연구원 논문집, 제 3권, 237 (1992).
36. Truswell, A.S.: Ian Darton - Hill. *Food Habits of Adolescents*. Nutr Rew 39, (1981).
37. Shannon, B.M. and Parks, S.C. *Fast foods: A prospective on their nutritional impact*. J. Am. Diet. Assoc **76**(3): 242-247 (1980).
-
- (1998년 10월 18일 접수)